

# ‘오락가락’ 장마... 길고 비 많아

## ■ ‘말’ 많고 ‘탈’ 많은 올 장마 분석

장마전선이 뿌리는 빗줄기가 아직도 휘날리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장마가 시작됐으니, 벌써 28일째다. 여름이 오는 것처럼 한해 도 거르지 않고 단단하게 찾아오는 장마. 특히 올해 장마는 기상청도 예측하기 힘들만큼 ‘오락가락’하며,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를 뿌렸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올해 장마를 분석해본다.

장마기간 동안 여수의 강우량은 619.8mm(19일 오후 3시30분 현재)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이 왔다. 순천에도 613.9mm의 비가 내려 2003년(547.4mm)의 기록을 66.5mm 뛰어넘었고, 해남은 486mm가 쏟아져 종전 최고인 1998년(431.0mm)보다 55mm 더 왔다. 광주는 473.7mm로 지난 2003년(643.2mm)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장맛비가 왔고, 목포와 완도 역시 평년보다 많은 341.5mm와 536.9mm가 각각 내렸다. 기상청은 장마기간 동안 제 3호



이번 장마기간 동안 쏟아진 폭우로 집이 물에 잠긴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선곡마을. 올 장마는 최근 10년 새 가장 길고 비가 많이 온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27일까지 계속된다면 36일 ‘신기록’ 강수량 여수 619.8mm ... 10년새 최대

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통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장마는 끝난다. 기상청은 다음주가 꽤야 장마가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마가 27일까지 계속된다면 남부지방의 올해 장마기간은 36일로, 최근 10년 새 가장 길었던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지난 1996년~2005년까지 남부지방의 장마를 분석한 결과, 장마가 가장 길었던 해는 1998년(6월24일~7월28일, 3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짧았던 해는 지난해로 23일간(6월26일~7월18일)이었고, 2004년(6월24일~7월17일 24일간)이 뒤를 이었다. <비도 가장 많이 온 올 장마=을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지나가는 바람에 강우량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마 왜 ‘번덕’이 심할까=장마전선은 따뜻한 해양성 북태평양 고기압과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6월 하순께부터 서로 얹히며 발생한다. 때로는 해양성 한대기단인 오호츠크해 고기압까지 가세해 무성환 변화를 반복한다. 전선에서 적과 아군이 대치할 때 쓰이는 ‘전선’(戰線)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장마전선에서는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세력에 따라 서로 밀고 밀리며 비를 쏟아붓는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면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간다. 반대로 대륙성 고기압이 강하면 전선은 아래로 내

■ 최근 10년간 장마기간 중 강수량 (단위:mm)

구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순천	해남
1996	354.7	336.7	349.6	317.4	404.5	337.5
1997	443.3	364.5	512.8	404.8	541.0	369.0
1998	446.1	417.3	476.9	517.4	445.0	431.0
1999	218.9	267.4	427.6	536.3	302.0	261.0
2000	377.5	359.4	291.6	464.6	526.0	316.0
2001	419.8	348.1	284.2	460.3	480.5	345.5
2002	207.0	226.2	442.5	359.4	270.0	281.5
2003	643.2	428.2	617.8	566.5	547.4	385.5
2004	357.1	400.4	185.5	240.4	376.2	387.0
2005	295.6	278.8	267.0	109.7	306.4	179.0
올해	473.7	341.5	619.8	536.9	613.9	486.0

려간다. 중부지방에 ‘물 폭탄’을 뿌린 장마전선의 남하 시기를 기상청이 잘못 예측한 것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응축 시기가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만 장마가 있나=장마 전선은 수천 km에 이르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뻗어 있다. 우리나라가 장마권에 들었다면 중국과 일본도 비슷하게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장마를 피한다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장마에 시

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장마’는 순우리말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매우’(梅雨)라고 한다. 중국발음으로는 ‘메이우’, 일본발음은 ‘바이우인데, ‘매화나무 열매인 매실이 익어 갈 무렵에 내리는 비’라는 뜻이다. 한·중·일 세 나라의 장맛비는 약간 차이가 있다. 중국의 장마는 소나기 형태의 비가 내리지만, 일본의 장맛비는 부슬부슬 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장맛비는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 광주·전남 주요댐 저수율

	저수용량(만)	현재저수용량(만)	저수율(%)
주암댐	4억5천700만	2억2천900만	50.1
탐진댐	1억9천100만	9천590만	50.2
동북댐	9천200만	9천200만	100
담양댐	6천670만	6천480만	97.1
광주댐	1천736만	1천520만	87.6
나주댐	9천133만	7천679만	61.9
정성댐	8천976만	8천480만	94.5

(19일 오후 3시 현재)

## 태풍·장마...댐 방류

### 주암호 저수율 50%

태풍과 장마로 인해 높아졌던 광주·전남 주요 댐의 저수율이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표> 주암댐의 경우 19일 오후 3시 현재 50.1%의 저수율(4억5천700만 중 2억2천900만)을 기록, 지난 6일 방류를 시작하기 전의 54.7%보다 4.6%로 감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은 지난 12일 한때 저수율이 74.7%에 달했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초당 50~500t을 방류해 저수율을 떨어뜨렸다. 탐진댐도 같은 시각 50.2%의 저수율(1억9천100만 중 9천590만)을 보이고 있어, 방류를 시작한 지난 12일 72.1%보다 크게 낮아졌다. 탐진댐 관리단은 18일 오후 7시까지 모두 4천 370만t의 물을 방류했다. 나주댐은 9천133만t의 저수용량 중 7천679만t을 수용하고 있어 61.9%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광주댐은 87.6%(1천736만 중 1천520만t)를 기록하고 있다. 동북댐(100%)과 탐양댐(97.1%), 정성댐(94.5%)은 각각 저수율 9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광주의 상수원인 주암댐(높이 58m, 길이 330m)은 물과 흙으로 만들어진 댐이다. 탐진댐(높이 53m, 길이 403m)은 물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안쪽은 직경 75~1천500mm의 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북댐(높이 44.7m, 길이 188m)의 주재질은 돌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주암호·동북호 쓰레기 ‘몹살’

### 태풍 ‘에위니아’·장마로 부유물 대거 유입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식수원인 주암호와 동북호가 제 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와 장마 이후 유입된 쓰레기로 몹살을 앓고 있다. 19일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태풍 에위니아가 전남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뒤 주암호에는 500t에 달하는 부유물이 유입됐다. 이중 90%가량은 계곡에서 흘러 들어온 나무가지 등이었고, 나머지는 페비닐·스티로폼·PET 병 등 생활쓰레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암호에 유입된 부유물 량은 ▲ 2001년 300㎥ ▲2002년 2천500㎥ ▲2003년 450㎥ ▲2004년 750㎥ ▲2005년 20㎥로, 태풍이나 수해가 있었던 해(2002년 태풍 ‘루사’·2004년 태풍 ‘매미’ 등)는 부유물이 많았다. 주암댐 관리단은 이날부터 직원 20여명과 부유물 제거선(3t급) 2척을 투입해 주암호 안에 흩어져 있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 이월 말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동북호도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생활쓰레기를 포함한 110㎥ 가량의 부유물이 유입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24일부터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5개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19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부터 4박5일간 영산강 전 구간을 탐방하는 ‘영산강살리기 대탐사’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생활안내	신고
<b>교통안내</b>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80-8114 환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b>신고</b> 학교폭력 국민연가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4시버너리 (02)118 국정감사 1366 여성긴급국민연가 1366 여직원위기돌봄 363-0155 광주 여성 전화 363-7739 광주 남성 전화 673-9001 광주이동통신대행센터 1391 국민연가 1391 광주노인현대대행센터 1389 국민연가 1389
<b>상담</b> 당직번호(20일) 233-2900 입선직 233-2900 법무시행 법률상담(20일) 239-1809 조형권	가정법률상담소 671-4050 보건복지상담센터 671-4050 광주 YWCA 527-000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민연가 1388 국제청소년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방위청상담 광주지방방위청 1588-9090 소년지원센터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8-9881

**이 책속에 귀하의 평생 건강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불임 갱년기 장애를 자연치유하는 **약용식물 마카**

신간 약용식물연구회 연구원 지음

- 해발 4000미터 안데스 고원에서 자생하는 천연식물 마카
- 잉카 왕과 귀족들만 먹던 강장식품 마카
-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지향하는 때로 여성의 미용 비결
- 발기부전과 불임, 갱년기 장애를 낫게 하는 마카
- 임신하기 쉬운 체질로 만들어 주는 마카
- 태무정부가 보유하고 보증하는 주요 수출상품 마카
- 마카를 우주식품으로 채택한 미국 항공우주국

정력부족은 민병의 시작이다  
 정력에 관한 올바른 지식  
 키도 크고 체격도 키우는 마카  
 마카 덕분에 발기부전과 조루도 고쳤다  
 발기부전 치료제보다 효과가 좋았다  
 마치 20대인 듯한 느낌  
 온갖 치료법이 소용없던 내기 만만 마지막 선물  
 70이 넘어 비로소 부부생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다  
 부부가 이성이 없어도 애기가 생기지 않는 불임  
 생식기 능률 활성화시켜 주는 아이노산이 풍부한 마카  
 불임치료에 효과적이 마카의 연구 보고  
 마카는 남성의 불임을 치료한다  
 갱년기 장애와 생리 불순에도 효과적이다  
 유산 후 마카 복용 후달 면에 임신에 성공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종을 극복하고 임신에 성공  
 50회의 인공수정 실패를 마카가 단번에 이루어준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마카는 놀라운 자연치유력으로 정력을 증강시킨다  
 고품질, 낮은 열산물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마카  
 만성피로와 무력감, 권태감이 사라졌다  
 성인병을 마카의 도움으로 경감하다

160쪽 값 12,000원  
 ISBN: 978-89-95353-00-1  
 출판사: 녹산출판사  
 전화: 1588-3871

**특색**

**제주도 자귀동 축제**

회(2만5천), 물회, 회무침

**제주도의 명품 이제 광주에서도 맛 보실수 있습니다.**

자귀동은 바다고기로 6월~8월까지 제주도 근해에서 잡힌다. 특히 지방, 단백질, 칼슘이 많은 영양식이며 자리 물회는 비린내가 없고 시원하며, 구수한 맛을 내는 특성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각광 받고 있다.

주월동 오징어너리 위치: 주월동 무등시장 인근 하이마트 옆  
 예약 및 주문내달: 671-1312, 011-604-7357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태진아** 7월 20, 21일

**혜은이** 7월 26, 27일

부킹천국 100%

정통 성인나이트만을 고집하는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